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"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"

성주호서 상반기 환경정화 활동

정재길 기자

승인 2025.07.05 21:44



환경정화 활동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]

[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6월 19일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에 위치한 성주저수지에서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했다.

환경정화행사는 저수지 환경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쓰레기 수거, 오염물질 제거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이다.

이날 실시된 환경정화행사에서는 가천면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과 지사 직원들이 함께 성주저수지 내 유입된 영농폐기물, 생활쓰레기, 병,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"성주호는 성주군 대부분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"라며 "앞으로도 저수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과 환경정화를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정재길 기자 ynkiler@hanmail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